

금잔화

한기간행물 등록 7호

www.uriseed.com

Vol. 27

등록번호: 경기A000107 등록일자: 2009년 8월 7일 발행일자: 2007. 10. 1. 간행: 격월간 발행처: 익곡영 편집인: 박국영 발행소: 경기도 이천시 오가면 송곡리 696 발행처: 우리꽃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95-82 TEL: 02-3412-1288~2 FAX: 02-3412-1283



경관적, 기능적으로 효과적인 도시녹화, 이제는 필요하다.

“서울시 ‘10만 녹색지붕만들기’ 사업 시행”

“옥상녹화지원사업은 2002년부터 5년간 28억원의 투자에 50개소를 녹화했으며, 올해부터 2010년까지 대폭 확대된 130억원의 투입, 보다 많은 건축물 옥상을 수놓는 녹지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갈 계획”

“백면녹화 2008년부터 민선4기 기간 동안 2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 구간에 확대 시행할 예정”

“옥상, 녹지로 바꾸면 용적률50% 인센티브”

현재 뉴스나 신문 기타 환경잡지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구들이다.

우리는 극히 한정된 유효공간 속에서 뒤돌아 볼 틈 없이 산업화의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 결과 자연생태계의 파괴라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환경정 공간에 녹지확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96년 이후 본격적으로 옥상녹화와 벽면녹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옥상녹화와 벽면녹화는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고층의 콘크리트 빌딩숲과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 자동차 배기가스는 지표에 도달하는 복사열을 스펙트럼 흡수하며 대기의 순환을 억제하고 케미컬 연료의 사용으로 공기 중 이산화탄소, 수증기, 메탄의 양이 증가하여 지구복사열의 방출을 억제해 주면 온도



보다 높아지는 열섬현상을 유발한다. 지난 100년간 지구 온도는 0.7℃ 상승하였다. 기상이변으로 기온이 점점 증가하는 이 시점에서 열섬현상은 사회문제로서도 무시될 수 없다. 도심 속 고층빌딩은 이 시대 최고의 방열기이다. 이 방열기기에 옥상녹화와 벽면녹화의 시공을 하였을 경우 겨울철 난방기 연간 16.6%절감되고 여름철에는 30℃가 줄므로 주변보다 7℃ 기온이 낮진다고 증명되었다. 또한 100m를 녹화하면 아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오

존(CO3), 황산화물(SOx), 납(Pb),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2Kg절감되고 외부소음도 20db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벽면녹화나 옥상녹화에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이점들을 다시 거론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현재 옥상녹화의 기술은 옥상지표층에 방수포, 투수블럭, 부직포, 산토와 모래, 비토, 초탄, 퇴비를 섞은 인공토양층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반위에 식물들을 식재하는 기술을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벽면녹화는 수직적으로 된 벽면에 기판체를 붙이기 위해 보통 식재매트를 사용한다. 식재매트의 공방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인공토양을 케미컬 접착제를 사용하여 얇게, 성형하는 방법, 적당히 압축되어진



인공상토를 코코넛천연섬유인 코이어를 감싸 포장하는 방법, 양기판과 코이어 줄을 이용하여 덩굴성 식물을 생장시켜 녹화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 이 모든 방법들이 지금 우리주위에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다.

‘식물생장에 무리가 없어야 한다. 가뭄위야 한다. 수명이 길어야 한다. 시공이 용이해야한다.’ 이것이 식재매트로서의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인데,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옥

상녹화 혹은 벽면녹화의 기판체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화학성접착제를 사용한 경우 수명은 길지만 접착제 주요성분인 페놀과 포름알데하이드의 식물에 유해한 인공합성물과 공극의 부족으로 인한 식물생장의 불량이 문제이고 또 코이어로 감싸 제품은 가뭄이나 식재 후 천연 섬유(코이어) 부티의 도양유실과 천연섬유의 부식으로 인한 침하 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고 벽면녹화 기판체를 사용하고도 기판 도양에 담쟁이, 인동 등 탐관식물들 식

재하는 오지못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옥상, 혹은 벽면녹화의 좋은 취지를 무색하게 한 정도는 식물생육이 불량하여 좋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양질의 식생기판체의 출현과 시공방법의 연구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다.

우리는 근래 몇 년 사이 창계전복원, 서울숲조성, 난지도공원조성 등을 경험하였고 그 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생태공원 등이 창계전복원, 서울숲조성, 난지도공원조성 등을 경험하였고 그 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생태공원 등

녹지공간 확보에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하지만 아직도 녹지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좀 더 가까이서 시민들이 푸르름과 쾌적한 환경, 휴식과 놀고 즐길 수 있는 환경조성이 절실히 필요함이다. 그런 면에서 더욱더 효과적인 옥상 및 벽면녹화의 필요성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다가온다.

Contents

- 외제도심속의 푸른빛도 1면
- 스포트라이트/우리에게 독자에게 2면
- 대표적 조경식물관/옥상, 양식기름 식물 3면
- 수종, 수변식물의 이해/Grass Scape 4면
- Small Garden Project/야생화를 이용한 생활의 지혜 5면
- 현장리포트 6면
- 현장리포트 7.8.9면
- 무늬종지리/0&A 10면
- 식물관리스케치 11면
- 특집: 우리조경인상 12.13면
- 지상중계 14면
- 포천부식물원 15면

연재 - 1 | 스포트라이트

늦가을까지 보석같은 꽃을 피우는 키작은 용담 하늘용담

용담은 한방에서 용담초라고도 불리는데 그 약 효능이 용의 살개와도 같고 귀하다하여 옛 중국에서부터 불려오던 이름이다. 근래에 용담을 조경용으로 간간히 사 용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선용담, 큰용담, 칸알용담 등은 키가 너무 크고 쓰라지는 등 생육이 좋지 않고 꽃도 몇 송이 피지 않으며 추위가 오면 개화를 멈추는 현상 등 어엿답지 않아 조경용으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반면 하늘용담(*Gentiana septemfida* Mountain Blue)는 기존의 용담과는 전혀 개성이 다른 조경용으로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품종이다.

초장은 약 10~20cm로 잎에 윤기가 있고 마디의 절간이 매우 짧다. 그리고 한 포기에 50송이 이상의 많은 꽃을 피운다. 꽃은 9월말에 피기 시작하여 11월말까지 피며 아침에 뜨는 해와 함께 보석같은 꽃을 피었다가 저녁 지는 해와 함께 꽃잎을 마루는 현상을 반복한다. 약간 의 실용성이 어느 초겨울까지도 햇빛만 있으면 개화가 지



잎의 모양, 식물품, 꽃의 모양과 화색 그리고 화기 등 가을꽃으로 좋은 소재이다.

9월말에 피기 시작하여 11월말까지 보석같은 꽃을 피우는 ...

속된다. 잎의 모양, 식물품, 꽃의 모양과 화색 그리고 화기 등 가을꽃으로 안성맞춤의 소재이다. 어엿하고가 없으며 병충해가 거의 없어 생육도 매우 강한 한 식물이다. 식재지는 양지, 반양지, 건조지 편편이나 비 약 간의 습지에서서도 잘 자란다. 식재시 포기들 키우기 위해서



는 충분한 시비를 해주어야 한다. 식재후 포기가 너무 커져 멸식현상이 나타나 잊지 않는 경우에는 이듬 방지하려면 7월경에 한번 정점을 해주는것이 좋고 시비는 6월초부터 9월말까지 2~3회 해주면 적당하다. 번식법은 삽목과 분주를 하게 되는데 삽목은 이른 봄 어

잎의 모양, 식물품, 꽃의 모양과 화색 그리고 화기 등 가을꽃으로 안성 맞춤의 소재

린 끝순으로 하는게 제일 좋고 분주는 새싹이 율르기 전에 하되 2~3년에 한번씩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하늘용담은 조경용으로 일반 화단은 물론 옥상, 락가든 등 어디에 적용해도 가을을 아름답게 수놓을 수 있는 보석 같은 소재이다.



초겨울까지도 햇빛만 있으면 개화가 지속된다.

우리넷이 독자에게

가을의 전설...

8월내내 지겹도록 반복되던 비의 그림자가 9월달에 비껴나더니 언제 그랬는지 가을바람에 실려온 햇살의 촉감이 봄의 그것인냥 착각이 들 정도로 파사롭다. 솔고르기를 하던 각 현장들도 불꽃난 고기처럼 활활하게 뜨는 새로운 '가을의 전설'을 만들기 위해 숨겨진 계절을 끌어내고 있다.

올해로 4번째를 맞는 우리조경인상이 8월말 4박5일 일정으로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날씨 관계로 보기 힘든 다면 백두산 천지는 매년 그러했듯이 올해도 우리조경인상 일행은 밤낮에 맞이해주었다. 그러어 다시 한번 천지의 아름다움, 신비함에 경의를 표할수 있는 기회를 갖지 수 있었다. 백학한 일정속에서도 재미있게 일정을 소화해준 우리조경인상 수상자들에게 다시 한번 보기의 맛을 드린다. 우리조경인상에 해당하는 뽕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번엔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다음번의 기회를 열어 놓으며 같이 멋진 아쉬움을 달래본다.

이번 현장리포트에는 파주시 심학산 들꽃이 꽃파을축제에 대해서 다루었다. 우리넷 5,6월호에서도 다루었던 지 지역축제가 성공을 하기위해서는 여러가지요소가 복합적,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된다. 성공한 축제로서 파주시 심학산 들꽃이 축제 꽃 줄과 함께한 경관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성공적인 축제에 기여한 공으로 '우리꽃' 박공영 대표가 감사패를, 김현철 차장, 마성민 과장이 표창장을 파주시로부터 받았음을 지면을 통해 알려드리다.

작년에 이어 2번째로 10월에 참가하는 일본 동경국제원예박람회(IFEX)준비가 한창이다. 작년이 탐색전이었던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재품을 선보이며 세계로 가는 디딤돌의 역할을 하리라 본다. 앞으로의 경



대표적 조경식물군(Genus)으로 본 분류학적 의미와 품종의 이해

15

Miscanthus속

Miscanthus속은 화분과로 대표적인 그라스 종류중의 하나이며 억새류라고 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약 17~20여종이 존재하여 억새, 물억새 정도가 주로 우리가 알고있던 종류였으나 '우리꽃'에서 몇 년전부터 무늬억새 등 다양한 품종을 선보이며 '억새'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잎의 무늬가 있는 무늬종, 가을단풍이 좋은 품종, 잎이 가늘고 키가 아담한 품종 등 형태적으로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특히 식물의 품이 좋기 때문에 조경용으로 대면적 군식하거나 포인트식물로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다. 특히 겨울에 잎이 갈변해도 대부분 그대로 품을 유지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매우 매력적인 경관을 유지한다. 품종에 따라 수번가에도 잘 어울리는 종도 있으며 꽃대는 절화용으로 많이 이용되어지고 있다.

억새

억새(*Miscanthus sinensis*)는 우리나라의 산야에 흔히 자라 키가 약 2m정도 자라며 꽃은 9월경에 핀다. 대관위로 군락을 이루던 가을 절경을 아름답게 수놓을 수 있는 대표적인 식재료이다. 요즘에는 가 지자재에서 아름다운 관공상품으로 억새를 조형하여 관공객의 발길을 유도하기도 한다. 활기와 습지에서 잘 자라는 억새로 물억새 (*Miscanthus sacchariflorus*)가 있는데 생태적인 등에 잘 활용되는 식물이다.

그런나 이들은 대부분 가을이 오기도 전에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품이 엉성하거나 조밀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관상시키기 가 꽃이 만발하는 가을과 초겨울로 국한되어지는 식물이다.

억새 그린라이트

그린라이트(*Miscanthus sinensis* 'Green Light')는 '우리꽃'이 기존의 품종중에서 육성선택한 품종으로 이른 봄부터 여름에 걸쳐 가을꽃이 피지 않아도 잔녹색의 잎과 초형은 매우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억새 특유의 절경을 연출한다. 큰 군락으로 쓰이고 좋은 생육타리용으로 활용되는 좋은 품종이다.

무늬억새

무늬억새(*Miscanthus sinensis* 'Variegatus')는 대형식물로 잎에 흰줄무늬가 아름답게 수놓아 있어 무늬가 매우 좋고 절감이 뛰어난 소재로 조경선정작에서는 화단조성시 중요하게 선택되어지는 소재중의 하나이다. 키는 약 2m정도까지 자라고 초형도 대형이라 독립수로 이용하거나 군락으로 조성하여도 좋다. 여름까지는 잎의 무늬를 가을부터는 잎과 꽃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매우 고급스러운 소재이다.



억새 모닝라이트

모닝라이트(*Miscanthus sinensis* 'Morning Light')는 잎이 아주 가늘고 조밀한 무늬종으로 키는 약 1.5m정도 자라고 다 자라뒤에는 흰색의 꽃이 만발한 초형을 유지한다. 잎의 무늬가 좋고 우아한 선 위기를 연출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억새품종 중의 하나이다. 초형이 아름다운 무늬종으로 녹색과 물, 건 등과 잘 어울려 절경의 그린라이트, 펀드라이트 등지에 적용하면 좋은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호피무늬억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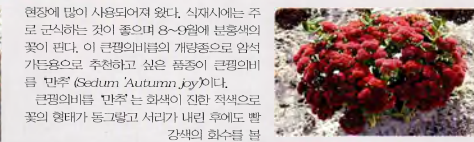
호피무늬억새(*Miscanthus sinensis* 'Zebra')는 무늬억새와 형태적으로는 매우 유사하나 잎의 무늬가 가로로 이루어진 매우 이색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다. 화려함은 무늬억새와 비교하여 떨어지나 이색적인 형태를 띠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데 제격이므로 포인트식물로 쓰 활용 가치가 높다.



빨강이 화색, 서리가 내린후에도 좋은

옥상, 암석 가든용 식물 [연재 - 15]

“큰핑의비름 만추”



큰핑의비름은 물나물과의 여러해살이풀로서 산과 들에 자생하는 야생화이다. 생육이 강건하고 건조에도 잘건디기 때문에 예로부터 조경



겨울에도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빨강이 화색은 매우 화려하다.

화색이 진한 적색으로 꽃의 형태가 동그랗고 서리가 내린후에도 빨강색의 화수를 볼 수 있다.

큰핑의비름에 비해 키가 균일하고 잎의 색이 불투명해 있어 따뜻한 리꽃이 여러 형태로 적

용하고 있는 홍합식재도 좋지만 암석과 잘 어울리며 하나하나 포기의 형태가 좋아 단색식재, 포인트 식재에 많이 사용한다. 특히 AR7가든에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블루의 잎과 진한 적색의 꽃이 하얀 빛깔의 암

아 네 모 네



자연을 담은 사람들

구입문의 : 02)3412-1281~2

현장 리포트

축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주 심학산 돌꽃이 축제현장”

경북북부의 새로운 신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파주시는 자유로를 따라가다 보면 출판단지(파출)가 있다. 그리고 이 출판단지를 굽어보면 많은 심학산이 있고 심학산이 깨안은 작은 마을 서해리 돌꽃이 마을이 있다.

2007년 파주시는 돌꽃이 마을 주민이 참여하여 추진하고 사에서는 주변정리 및 행정적인 뒷받침과 도시숲가꾸기 사업 등 사용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파라이드에 이들 주민들을 태우고 민속춤을 추며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내용이 알찬 축제가 되었다.

파주 심학산 돌꽃이축제의 가장 큰원은 꽃대궐 언덕과 돌꽃이마을 앞 들판에 핀 꽃의 향연이었다.

400,000㎡에 펼쳐진 2년생 꽃이 만개할 시작하자 눈에 들어오는 경관적 요소가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하여 자연스럽게 축제의 흥으로 빠져들게 하는 효과를 얻어낸 것이다.

아마도 단시간의 준비와 적고 제한된 예산으로 이런 큰 성공을 거둔 지역축제를 흔하게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경관 축제는 새로운 장을 연축한 이번 심학산돌꽃이 축제가 남긴 메시지는 주민의 참여와 공무원들의 헌신 그리고 축제적 요소인 꽃경관이 함께 조율되어 만들어진 자연적 경관이 인간 본연의 축제적 광기를 심장의 저 아래로부터 퍼 올린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간동안 파주시를 다녀간 많은 지자체의 공무원들의 눈에 비친

큰 경관은 선점을 당했다는 아쉬움을 갖게 하는데 충분한 충격을 던진 것 이외엔 피어지고 있다.

“에 이런 행사를 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 같은 생각으로 벤치마킹한 지자체 혹은 축제관련 인사들이 많았다.

우리는 많은 경우 지역 축제가 지역민들의 전지로 끝나는 경우와 인력 동원을 위해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일이 흔하다. 그러나 파주의 심학산 돌꽃이축제는 절로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경관적 요소가 있어 서용이고 지방이고 어디에서도 찾아오는 그런 축제로 치러졌는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꽃이 함께한 2007년 심학산돌꽃이 꽃축제, 이제 내년 봄 2회가 기다려진다.

사람들에게 느낌을 가져다 준 축제가 되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관 직면제를 선정 선정되어 농가에도 임장부보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서해리 돌꽃이 마을은 서해리 명소로 부각되면서 외지에서 찾는 사람이 부쩍 많아지고 있어 주민들의 기대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사에서는 마을 정원을 주민 스스로 꾸밀 수 있는 세미나는 물론 선진적 견학과 교육을 통하여 주민들의 뜻을 모으고 주민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직접 비용을 내어 꽃을 심고 화분은 물론 방문객들에게 재미를 주기위해 작은 토끼여리 뿐만 아니라 테크와 작은 연꽃 등을 만드는가 하면 축제기간에는 자신들의 정원을 방문객들에게 소개하고 차와 기본적인 음식 그리고 꽃과 식물 등 기념품을 판매하여 훌륭한 재미를 보기도 하였다.

사에서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대외공간 주민들을 초청하여 세계인이 참여하게 하였고 꽃차



여량을 집중하고 공원사업을 펼쳐 치러낸 제1회 심학산돌꽃이축제가 열렸다.

이 축제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자신의 정원을 기구와 행사에 참여하여 기존의 관주도의 축제와는 다른 주민참여의 축제마당을 펼쳐 5일간 40만 명의 인원이



이 참여한 한국최초의 주민자치경관축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한 성공한 축제로 자리매김 했다.

주민들이 경작하던 논과 밭을 기꺼이 내놓아 묵히던 밭과 논에 꽃씨를 뿌리고 개방예정부지로 인해 몇년간 방치되어 잡초만 무성하던 큰 흙무덤을 꽃대궐로 탄생시켜 모든 이의 탄성과 선행하지 않고도 보는



현장 히트상품



다양한 화색의 가을연출 아스타 시리즈

1. 가을을 대표하는 최고의 숙근지피식물
2. 생육이 빠르고 다화성의 꽃은 매우 아름답다.
3. 화색이 다양하여 서로 어울려 식재해도 좋다.



다양한 화색의 자유로운 물결 개량감국

1. 서리에도 강해 늦가을까지 화려한 꽃을 연출
2. 꽃이 크고 화색이 다양하다.
3. 장기간화행으로 초여름부터 꽃을 감상할 수 있다.



햇살을 담은 초록의 바람 털수염풀

1. 햇살, 바람과 함께 최상의 조화를 이루는 그라스
2. 잎의 부드러움과 고급스러움에 있어 단연 돋보이는 식물이다.
3. 분화용으로 매우 잘나 디스플레이, 행사축하용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소재이다.



우리꽃 '현장히트품종'

나비들의 황홀한 잔치

가우라
Gaura

1. 6월부터 10월까지 연속 개화형
2. 생육이 강해 어디에 적 용해도 잘자람



화 색 화양
화 기 6~10월
초 장 60~80
종 도 양지, 반음지



화 색 분홍
화 기 6~10월
초 장 60~80
종 도 양지, 반음지



화 색 빨강
화 기 6~10월
초 장 60~80
종 도 양지, 반음지



화 색 연분홍
화 기 6~10월
초 장 30~50
종 도 양지, 반음지

향기가 좋은 장기개화형

속근사루비아
Salvia

1. 봄부터 가을까지 장기간 개화형
2. 꽃과 더불어 잎의 향이 좋은 식물



화 색 자주
화 기 6~9월
초 장 30~40
종 도 양지



화 색 보라
화 기 6~9월
초 장 20~30
종 도 양지



화 색 보라
화 기 5~9월
초 장 40~50
종 도 양지



화 색 보라
화 기 5~9월
초 장 30~40
종 도 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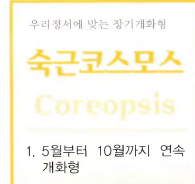
화 색 화양
화 기 5~9월
초 장 40~50
종 도 양지



화 색 보라
화 기 5~9월
초 장 40~50
종 도 양지



화 색 자주
화 기 5~9월
초 장 40~50
종 도 양지



화 색 자주
화 기 5~9월
초 장 40~50
종 도 양지



화 색 노랑
화 기 6~10월
초 장 30~40
종 도 양지, 반음지



화 색 분홍
화 기 6~10월
초 장 30~40
종 도 양지, 반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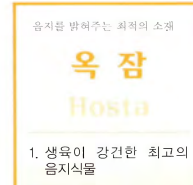
화 색 빨강
화 기 6~10월
초 장 30~40
종 도 양지, 반음지



화 색 노랑
화 기 6~10월
초 장 30~40
종 도 양지, 반음지



화 색 주황
화 기 6~10월
초 장 30~40
종 도 양지, 반음지



화 색 주황
화 기 6~10월
초 장 30~40
종 도 양지, 반음지



화 색 보라
화 기 6~8월
초 장 30~40
종 도 양지, 반음지



화 색 보라
화 기 6~8월
초 장 30~40
종 도 음지, 반음지



화 색 하양
화 기 7~8월
초 장 50~60
종 도 음지, 반음지



화 색 하양
화 기 7~8월
초 장 50~60
종 도 음지, 반음지



화 색 하양
화 기 7~8월
초 장 50~60
종 도 음지, 반음지

우리꽃 '현장히트품종'

화색이 너무 아름다운

툼 풀
Achillea

1. 화기가 길고 생육이 강함
2.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화색



화 색 노랑
화 기 6~10월
초 장 50~60
종 도 양지, 반음지



화 색 빨강
화 기 6~10월
초 장 50~70
종 도 양지, 반음지



화 색 분홍
화 기 6~10월
초 장 50~60
종 도 양지, 반음지



화 색 하양
화 기 6~10월
초 장 50~60
종 도 양지, 반음지

음지 최고의 지피소재

아 주 가
Ajuga

1. 음지 최고의 지피식물
2. 잎의 모양, 크기, 질감이 서로 달라 구미에 맞게 품종 선택가능



화 색 보라
화 기 4~5월
초 장 10
종 도 음지



화 색 보라
화 기 4~5월
초 장 5
종 도 음지, 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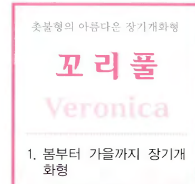
화 색 보라
화 기 4~5월
초 장 10~15
종 도 음지, 양지



화 색 보라
화 기 4~5월
초 장 10
종 도 음지



화 색 보라
화 기 4~5월
초 장 10
종 도 음지



화 색 보라
화 기 4~5월
초 장 10
종 도 음지



화 색 분홍
화 기 5~10월
초 장 20~30
종 도 양지, 반음지



화 색 보라
화 기 5~10월
초 장 20~30
종 도 양지, 반음지



화 색 분홍
화 기 6~10월
초 장 40~50
종 도 양지, 반음지

우리정원에 맞는 장기개화형

속근코스모스
Coreopsis

1. 5월부터 10월까지 연속 개화형
2. 우리의 정서에 알맞아 모든 식재지에 잘 어울리는 식물



화 색 노랑
화 기 6~10월
초 장 30~40
종 도 양지, 반음지



화 색 분홍
화 기 6~10월
초 장 30~40
종 도 양지, 반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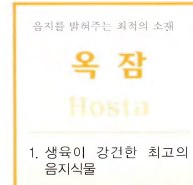
화 색 빨강
화 기 6~10월
초 장 30~40
종 도 양지, 반음지



화 색 노랑
화 기 6~10월
초 장 30~40
종 도 양지, 반음지



화 색 주황
화 기 6~10월
초 장 30~40
종 도 양지, 반음지



화 색 주황
화 기 6~10월
초 장 30~40
종 도 양지, 반음지



화 색 보라
화 기 6~8월
초 장 30~40
종 도 양지, 반음지



화 색 보라
화 기 6~8월
초 장 30~40
종 도 음지, 반음지



화 색 하양
화 기 7~8월
초 장 50~60
종 도 음지, 반음지



화 색 하양
화 기 7~8월
초 장 50~60
종 도 음지, 반음지



화 색 하양
화 기 7~8월
초 장 50~60
종 도 음지, 반음지

음지를 밝혀주는 최적의 소재

옥 잠
Hos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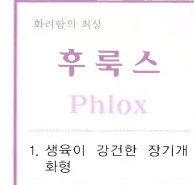
1. 생육이 강한 최고의 음지식물
2. 잎의 질감, 크기가 서로 달라 단조로운 음지에서 다양함을 연출함



화 색 연분홍
화 기 6~10월
초 장 60~70
종 도 양지, 반음지



화 색 보라
화 기 6~10월
초 장 40~50
종 도 양지, 반음지



화 색 보라
화 기 6~10월
초 장 40~50
종 도 양지, 반음지



화 색 빨강
화 기 6~10월
초 장 60~70
종 도 양지



화 색 하양
화 기 6~10월
초 장 60~70
종 도 양지



화 색 분홍
화 기 6~10월
초 장 60~70
종 도 양지



화 색 주황
화 기 6~10월
초 장 60~70
종 도 양지



화 색 보라
화 기 6~10월
초 장 60~70
종 도 양지



화 색 빨강
화 기 6~10월
초 장 60~70
종 도 양지



화 색 분홍
화 기 6~10월
초 장 60~70
종 도 양지

특집

제4회 우리조경인상

천지(天池)다! 천지(天地)다!



토요일 이른 아침 새벽이 운전에 차는 주로 공황으로 행했다. 오렌지색 아내의 앞 자리에 앉아보니, 중국 담시(丹詩)라는 아이에게 걱정 반, 부러움 반 직접 공항까지 배웅을 해준다 했다. 조상했다, 잘 다녀오며 짧은 배웅으로 다음 여름, 일상을 뒤로 하고 다음 세상의 길을 나선다. 약속 시간보다 너무 일찍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공항 주변 조경시설을 돌아보았다. (작업이 적당인걸...) 공항 주변의 수목이나 조형물은 책판한 환경에 잘 적응하여 생육상태가 양호해 보였다. (인정 나 관리가 필요하겠지...)

인현의 날씨도 녹초지 않았다. 달이 날 정도로 더워짐과 함께 약속시간이 다 되었다. 어떤 단사를 갈만큼 분들과 간단히 불상식을 하고 출국수속을 마쳤다. 중국 남방항공사의 비행기가 떠나게 된다. 중국 장춘(長春) 비행기는 어느덧 인천 국제공항을 났다. 중국 상공을 날고 있었다. 하늘에 국경표시가 없는 것처럼 한국의 하늘과 중국의 하늘이 다르지 않다. 창밖을 내다보니 3시간 북색의 대기구름과 아래로 펼쳐지는 풍경이다. 나뭇가지에 어항사나 쉼터(休息)의 함도있어 이따가 강했던 중국의 이미지가 새롭게 다가온다. 기내식을 먹고 얼마 되지 않아 착륙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기내에 전해져 온다.

일국심사를 마치고 공항 밖을 나서자 같은 비행기로 도착한 여행객을 마주 나온 중국인들을 볼 수 있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가족에게 꽃을 건네고 눈물을 흘리며 반가워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이곳도 사람 사는 곳이며 여행의 조운은 흔스럽지만 우리나라 훨씬 인간적인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장춘의 하늘은 맑고 청량했다. 회사에서 준비한 바스를 타고 장춘공항을 빠져나왔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하늘에서 보았던 3가지 북색 심체에 놀리지 않을 수 없었다. 연두색은 곧, 분홍색은, 제일 진한 북색은 숲,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북색 정자는 바로 옥수수였다. 벌써 몇 시간을 넘도록 달려도 정자의 옥수수 밭이 보이지 않았으며, 이 또한 사람의 힘으로 파종하고 추수한다는 설명에 또 한번 놀랐다. 고 유가 시대에 이 옥수수 기림을 생산한다면... 중국의 광대한 대지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바스는 하얗게 덮였었다. 농가들 밭과 조경한 소도시를 차례로, 창밖으로 보이는 어둡게 작은 모습에 신기해 하는 동안 어느덧 배는 옥수수밭 아래로

지고 있었다. 인현이 보았던 중국영화, 젊고 어린 한 여자가 리가 가는 때부터 나귀 한 마리와 뒷따라 나귀 많은 남자에게 끌려가 살아있는 여인의 자연한 삶과 정열에 끌렸는 옥수수밭이 불타고 저녁노을을 또한 내뿜은 운운 붉은 화염이 인상적인 '붉은 수수밭'이라는 영화의 장면이 떠올랐다. 또 몇 시간을 달렸을까 중간에 저녁을 해결하고 또 다시 이동하기를 몇 시간, 새벽이아 정맥혈에 도착하여 숙소에 여정을 할 수 있었다.

다음날 기상하여 여정을 청기고 아침식사를 위해 숙소에 나왔다. 저녁밥에 보지 못했던 정맥혈 시내의 면모가 낯설고 조짐은 날 정맥혈 시내전경이 눈에 들어왔다. 아침식사를 끝내고 바스에 올라 2일째 일정을 시작했다. 오늘은 압록강을 지나 새로운 관광지로 알려지기 시작하는 장백성 립경구를 둘러본다고 한다. 한참을 자났을까 메스컴을 통해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다. 안쪽까지다. 한반도와 중국의 지리적 관계, 꽃재 내, 탈북자 여러 단어가 일시에 떠오른다. 소리처럼 금방 반대쪽에서 화단할 것만 같다. 낯은 정맥과 강변

에 나온 주민들, 생활의 일상성을 압록강 물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인다. 가슴 한구석 안쓰럽고 초현한 생각이 든다. 여행모든 한동안 침묵이 흐른다. 모두들 같은 생각이 있었을 것일까... 그 곳 또한 사람이 사는 곳, 어쩌면 그 나라들보다 만화경하더 삶이 있어 있을지도 모른다. 숲이라고는 보이지도 않. 민들레가 땅이 원하면 우리는 한때! 주재사(主在)에! 신전성 표어가 열렸는 북한주민의 모습과 고지대로 읍살면서된다. 바스는 장백성립경구 입구에 들어섰다. 초안에 들어서자 영수준 원시림이 펼쳐진다. 수 정맥를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바위에, 폭포였다. 나뭇잎 하나, 돌 한조각 내 놓아, 내 가슴에 담기까지 열심하 바라보았다. 여행 모두 기쁘고도 신기한 자연 풍경에 귀를 기울여 그칠 줄 몰랐다. 태고의 산비탈 뒤로 허미 하사했다. 압록강변의 산등에서 정상을 밟았다. 맛있게 점심식사를 마치고 백두산 자락을 끼고

'우리꽃'에서 보급한 우량의 소재를 헌정에 잘 적용하여 한차원 높은 경관예술을 가능하게 한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조경인상'이 올해로 4회를 맞는다. 대상 선정업체 담당자들과 우리꽃 직원 3명은 4박5일간의 일일코스 중국연수를 다녀왔다. 중국연수를 다녀온 김혜사 조현일남의 글을 쓴다.

- 편집자주 -

한참을 달려 다음 행선지인 이도(伊都)로 향했다. 백두산 천지(天池)를 이르기 위한 관문 도시라 한다. 밤이 되어서야 이도(伊都)에 도착했다. 정미(丁未) 도원과 인도, 주원의 산가 등 도시의 면모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다. 한도(汗道) 중국어가 명기되어 있는 관문도 즐비했다. 저녁식사를 위해 조식초이 경양하는 식당에 들었다. 한국에서의 상 차림새와 비슷하지만 맛은 조금의 차이가 있다. 어쩌면 이곳 음식이 진짜로 내 입맛이 조금씩 들어 익숙해져 변질 되었을지도 모른다. 생선이 문득 들었다. 맛있는 음식에 중국숙도 빠지지 않고 몇 순배 오고갔다. 즐거운 시간이었다.

셋째날, 일찍 기상하여 식당에 들러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고깃국으로 든든히 아침을 챙겨 먹었다. 숙창(宿倉) 먹은 김치찌개가 무척 맛있었다. 한 시간여를 탄다자 천지로 오는 백두산 입구에 도착했다. 주차장에서 두터운 관바를 빌려주는 상인을 보았다. 따뜻한 중국 남부에서 오는 관광객을 위한 치아라 설명했다. 별것이 다 분발하기 되는구나 싶다. 입장권을



값은 동안에 여행 모두는 등소장이 직접 썼다. 정맥산기암비에서 단계사지를 촬영하고 출입문을 통과 했다. 해발 2,750m 민족의 원상, 백두산에 와 있음이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입장 때에 직접 등산하지는 못하고 차량으로 천지까지 갈 예정이라 한다. 예정에는 관광객이 타고 온 차량으로 직접 천지에 오를 수 없었다. 한때는 천지에 오르기 위해 서는 입장권외에 승차권을 끊고 바스를 이용해 중간지점까지 오르고 그 곳에서 다시 자가로 갈아타고 천지까지 가도록 한다. 관광객을 올리기 위한 중국 상층의 면모가 보인다. 바스에 올라 알아듣지도 못하는 중국 안내원의 설명을 듣고 며 중간지점까지 행한다. 한 두어시간 차로를 오르는 것이 마치 내 등글기에 주-하고 신을 고고 그 위치를 타오르는 듯한 오악한 느낌이 들었다. 인도(林道)개념의 갈아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국의 문화에 백두산이 필요이상 훼손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유대하게 된다. 바스에서 내린 여행은 다시 정맥로 나-어 타고 가파른 백두산 길을 오르기로 시작했다. 급이지는 길을 운전자는 숙련된 승사로 빠르게 오르기로 시작했다.

다. 차량 밖으로 천체의 자연풍경이 펼쳐지고 어느새 차는 정상부에 마련된 주차장에 우리 여행을 내려 놓았다. 백두산의 하늘은 맑다. 맑았다. 차에서 내리자 눈앞에 펼쳐지는 백두산의 위용은 탄성을 자아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좌에서 조각한 듯한 환곡과 끝을 가늠할 수 없는 산의 이질적, 맑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자체였다. 이제 천지를 향해 몸을 돌렸다. 한 걸음 한걸음 옮길 때마다 감정은 극(極)에 차달았다.



갑자기 눈앞의 하늘, 땅 그리고 물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천지(天池)다! 천지(天池)다! 천지(天池)다! 12개의 바위 봉우리가 천지를 감싸고 한 가운데 고즈넉 자리 잡은 웅대한 자연, 장엄이었다. 가슴은 터질 듯 했고,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미사아구도 이 경관에 빗대기는 부족할 것 같았다. 여행 모두 와-와-하는 탄성만 연발할 뿐이었다. 가족들이 보고 싶었다.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감동을 전했다. 다시 올 수 있을까, 아니 가족과 함께 꼭 한번 다시 찾으리라 다짐했다. 여행은 준비해온 재물을 차려놓고 백두산 천지에 예를 갖추었다. 한시간씩 절



을 올렸고 나 또한 개인적 비련과 함께 보다 큰 연원을 기원했다. 천지를 배관으로 단계 기암 환경을 했다. 바스정류장까지 하산하여 장백폭포를 향해 산행에 올랐다. 백두산 위시람 사이를 데크(deck)로 조성된 보행로를 따라 40여분 올랐을까 장쾌한 땅의 여리 아쟁하고 다년생 초화류를 둘러보고 여행은 각자의 관심분야에 따라 분담이 오고갔다. 종자 하나하나에 여러 사람의 의도와 노력이 녹아 있음을 절감하게 되고 가지 않는 길에 묵묵히 매진하고 있는 우리꽃 관계자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드린다. 다시 연길시에 정박하여 여행을 먹고 연길 시내구경을 하러 했으나 여행 중 한 분의 제에 따라 모두들 두만강 담에 나섰

다. 연길에서 차로 2시간여를 달려 도착했다. 압록강과 함께 국

경을 이루고 있는 두만강, 50여 미터 넘어 보호 조반원의 모습이 또렷히 보인다. 유람선을 향해 손을 흔들러 준다. 한때는 중국과 북한 사이에 걸치던 교만의 중간지점에 경계를 표시하고 그 곳을 관망하는데 눈을 지루하도록 해놓았다. 두만강을 수변 공원으로 조성해 놓고 국경 자체를 관광 상품화 했다.

바스는 '우리꽃' 중국농장이 있는 안도로 향했다. 안도에 들어서자 깨끗하게 정리된 가로변과 건물들이 정갈해 보였다. 숙소는 여장을 내려놓자 저녁식사를 위해 농장주처로 이동했다. 숙소는 유람선으로 지루도 계곡을 따라 유람선이 흐르고 있으며, 그 유람선을 이용해 산 아래에 목욕탕도 조성해 놓았다. 하행길에 운전수에 계란을 삶아 관광객에게 대접하고 있었다. 시장도 하러다와 백두산 온천수에 삶은 계란을 맛있게 먹었다. 여행 모두 저마다의 가슴속에 큰 추억(217)을 가져 가는 날, 따뜻한 표정이었다.

4일째,오늘은 농장을 떠나 하기로 했다. 이곳은 '우리꽃' 장업주가 중국농장을 개척하며 불소 방문을 받아 장소를 선정하고 조성한 곳이라 했다. 농장에 여러 꽃들이 피고 지고 있었으며 조선족 아주머니들은 종자 채취에 여념이 없었다. 한국의 높은

지가와 인건비에 비해 중국농장에 우리꽃 종자를 생산하고, 한 국의 이전 농장과 함께 남동하고 있다고 했다. 농장 이곳저곳의 여러 아쟁하고 다년생 초화류를 둘러보고 여행은 각자의 관심분야에 따라 분담이 오고갔다. 종자 하나하나에 여러 사람의 의도와 노력이 녹아 있음을 절감하게 되고 가지 않는 길에 묵묵히 매진하고 있는 우리꽃 관계자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드린다. 다시 연길시에 정박하여 여행을 먹고 연길 시내구경을 하러 했으나 여행 중 한 분의 제에 따라 모두들 두만강 담에 나섰

다. 연길에서 차로 2시간여를 달려 도착했다. 압록강과 함께 국

경을 이루고 있는 두만강, 50여 미터 넘어 보호 조반원의 모습이 또렷히 보인다. 유람선을 향해 손을 흔들러 준다. 한때는 중국과 북한 사이에 걸치던 교만의 중간지점에 경계를 표시하고 그 곳을 관망하는데 눈을 지루하도록 해놓았다. 두만강을 수변 공원으로 조성해 놓고 국경 자체를 관광 상품화 했다.



연길에서 장춘까지 기차로 이동하려 했으나 표를 구하지 못해 침대(침대)로 이동하기로 했다. 침대(침대) 한구에서는 보지도 못했던 또 하나의 색다른 체험이었다. 10시간 정도의 긴 이동 시간으로 밤에 출발하여 다음날 아침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바스에 들어서자 한사람 간신히 눈을 절도의 침대에 이어서도 잠자지 않고 배에게 아낌없이 졸은 가슴을 연상하게 한다. 필요한 방법을 남겼다. 몇년가 오랜 시간 이동을 위해 고안한 교통수단이었다. 바스는 아침이 되어서야 장춘에 도착했다. 중국여행이 서서히 마무리 되어가고 있었다. 일정 내내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현지 자사(자사) 김호철 경리님과 아수(아수)를 나누었다. 4박5일 좋은 사람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한국으로, 그리고 일상으로의 복귀. 많은 것을 보았고 느꼈으며 좋은 경험을 하게 해준 우리꽃(우리꽃)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우리꽃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 분야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어가기를 바란다. 우리꽃의 발전과 성장을 기원하며... (C)

추식구근은 조경현장의 새로운 아름다운 경험을 드립니다.

이른 봄의 특별한 아름다움

"추식구근"

// 추식구근 주문을 받습니다 //						
품 목	회기(월)	회색	키(cm)	식재수/㎡	식재깊이cm	최소량(개)
아네모네볼란타	3~4월	혼합	15	120	3	1000
크로커스	3~4월	혼합	10	100	5	1000
무스카리	4~5월	보라	15	120	5	1000
수선화	4~5월	흰, 노랑	20~40	25~50	10	500
튤립	4~5월	혼합	30~50	80~100	10	1000

→ 주문을 서둘러 주십시오. 빠른수록 우량의 품종 공급이 가능합니다.



자연을 담은 사람들 (C) 우리꽃 구입문의 : 02)3412-1281~2

이천연구소

1만 3천평의 생산·연구기지



지상중계



▲ 전지포장을 처음에 만들면서 방관객이 전지관 식물들을 편안히 볼 수 있도록 길을 조성하였다. 길을 흙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다른 소재로 처리하기 위해 고민

하다 그레도 제일 문안한 소재인 양잔디로 포장하여 조성하였다. 처음에는 푸르른 잔디가 시각적으로나 밟을때 부드러운 촉감 등은 좋았으나 갈수록 관리하는데 있어 많은 신경을 써야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거의 1주일에 1회씩 깎아주어야 했고 조금이나마 게을리하면 지저분해지고 해서 대체식물로 카펫잔디를 재결정했다. 전지포장 앞쪽에 심어놓기도 했는데 매우 조밀하고 지피력이 뛰어나며 또한 단열에도 강하여 잔디대용소재로 이러한 소재가 없겠다 싶어 기존 잔디를 죽이고 중간 중간에 카펫잔디를 심어 놓았다. 카펫잔디와는 또한 습에도 강하여 장마기에도 잘 견디는데는 좋은 소재이다.



▲ 전지포장의 수변에는 다양한 세팅류가 심겨져 있다. 건조에 강한 세팅류는 안상향 중수제이고 활착하고 제모양을 갖추면서 벽에 매달려있는듯한 다양한 세팅류는 색다른 경관을 연출한다.



▶ 연구소와의 암석가들은 가을을 맞아 새로운 옷을 갈아 입는다. 빨간색의 화색이 눈부신 콘페티바를 만추, 울창색의 부드러운 솜방망이 수크림 그리고 가을은 아름다와 함께 한창 무르익어가고 있다.



▲ 우리나라의 신아에는 많은 그라스종류가 있다. 같은 어세라도 품이 좋거나 쓰러지지 않는 등 형태적으로 서로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앞으로는 조경의 주요소재로 그라스류가 크게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와 가까이 있는 좋은 그라스류를 각 지사에서 재검하여 관찰, 선별하기위해 그라스 포장을 조성하였다.



▲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라고 했다가, 잘 익은 각종 농작물을 채취하여 정성들여 깨끗하게 정성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다시 육묘장에 파종하여 길러져 포트에 또는 노지에 심겨져 새로운 제품으로 태어난다.



▲ 9월로 넘어오면서 가을꽃들이 제각기 기지개를 펴고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다. 그 중에 서도 제일 눈에 띄는것이 아스타 품종이다. 모쪼록 한곳에서 다양한 색깔의 아스타 품종이 만개되어 가을을 알리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조금 늦은 10월에 꽃을 피우는 아스타 고성종들이 그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약 10여종의 아스타 품종이 가을을 수놓고 있다.

우리꽃 이천연구소 찾아오시는 길



1 중부고속도로 이용시

- ① 양죽 IC
- ② 장호원방향 화회천(4.5km)
- ③ 이천 수안리 이정표따라 화회천(5km)
- ④ 막힌 T자형삼거리 화회천(800m)
- ⑤ 남해와리마을 입간판 앞 우회전

2 영동고속도로 이용시

- ① 이천 IC
- ② 장호원방향
- ③ 하이닉스 지나 대정삼거리 우회전 약(10km)
- ④ 송죽유류소(우측)
- ⑤ 남해와리마을 입간판 앞 화회천

3 이천시내 국도 이용시

- ① 대정삼거리 지나 직진(10km)
- ② 북방사거리 우회전
- ③ 성성, 모기행방 우측으로 빠져
- ④ 군대리 아래로 화회천
- ⑤ 송죽유류소(우측)
- ⑥ 남해와리마을 입간판 앞 화회천

우리넷 편집실에서...

“우리넷은 독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 우리넷에서는 다음으로부터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기고(기행문)을 비롯한 조정에 관련된 글을 받고자 합니다. 채택된 글에 한해서 소정의 상금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독자여러분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 내용을 우리넷 홈페이지(www.uninet.com)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넷 Q & A 코너를 통해서 게재하겠습니다.

우리넷 독자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더욱더 유익한 우리넷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귀비식물원

■ 농업적 경관, 체험, 휴식이 있는 곳

10

포천뷰식물원

■ “양귀비꽃은 어디 있나요?”

아직도 뷰식물원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은 양귀비를 찾는다. 양귀비는 5월말에서 6월말에만 볼 수 있다고, 이미 종자채종까지 다 끝났다고 얘기하면 다들 무척 아쉬워한다.

“양귀비를 보려고 멀리서 왔는데....”

현재 뷰식물원에 양귀비는 없다. 하지만 양귀비가 없다고 해서 볼 게 없는 게 아니다. 주차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변로를 따라 한 바퀴 돌아보자. 가을꽃들이 아직 개화하지 않아 가장 꽃이 없는 시기인 현재에도 뷰식물원에는 다양한 종류의 꽃들을 볼 수 있다.

주차장에 들어서면 우선 혼합식재를 해놓은 양귀비밭이 눈에 들어온다. 후박스를 비롯해서, 숙근코스모스, 포리플 등 다양한 꽃들이 어우러져 있다. 자작나무 아래 심겨진 노란색 숙근코스모스가 하얀바람을 춤을 춘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서면 온통 보라색 물결이 일렁인다. 자작한 꽃들이 어우러진 베네티나 자연히 발걸음을 멈추게 만든다. 나뭇잎과 별들이 물러들며 가을을 뽐내고 있는 모습이 정겹다.



1년생 초화과 숙근초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시크릿가든

■ 화 바인 양귀비밭

양귀비밭으로 가보자. 양귀비가 피어있을 때와는 또 다른 감동이 일 것이다. 노란색 황화코스모스, 보라색 베네티나, 흰색 개구리, 붉은색 가우라, 여러 가지 색깔이 섞인 코스모스 믹스타사제. 다양한 색상의 후박스 등이 S자 라인으로 저 능선 바깥까지 이어져 있다. 곧게 뻗은 베네티나와 아래 섞여놓은 베네티나가 아치는 꽃피지 않았지만 열을 정도 후반 보라색 꽃물결을 이루리라.

■ 은밀한 시크릿가든

비너를 담은 흰색 꽃이 시원스런 옥잠과 다양한 품종의 다달리아가 심겨져 길을 지나 시크릿가든에 들어서



양귀비 아름다운 보라색 베네티나 손님을 반길게 맞이하고 있다.



백합원에 백합이 피고잔치리에 가을을 맞이하여 황화코스모스가 개화하고 있는 전경



제2회 뷰식물원 사진전 시상식 장면



양귀비밭이 화바퀴 새로운 꽃들로 물결을 이루고 있다.

면 양귀비밭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게 된다. 1년생 초화과와 다년생 꽃들이 적절하게 어우러져 전경대에 서 내려다보면 그림 같은 모습을 연출한다. 저 멀리 황금색으로 바뀔이 어둡고 바로 앞에는 온갖 꽃들이 출렁인다. 근심을 잊게 만들어줄 충분한다.

■ 백합원의 변신

백합이 피고 전 자리에서 이번엔 노란색 물결이 일렁인다. 백합원이 다시 화려한 변신을 한 것이다. 작년보다 더 넓은 공간에 황화코스모스를 파종해서 노란색 꽃들이 피기 시작했다. 소나무와 무척 잘 어울린다. 노란색도 다 같은 노란색이 아니다. 어떤 높들은 맑은 노랑이고 어떤 높들은 주황색에 가까운 노랑이다.

“어 백합이 왜 지금 피었지” 무지개 동산 위쪽에 현재 20가지 품종의 백합이 만발해 있다. 원래 백합은 7~8월에 피지만, 이곳에 피어있는 백합은 늦게 식재해서 지금이 한창이다. 뒤늦은 백합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무지개원위에 뒤늦게 만발한 백합

■ 앞으로 만날 수 있는 가을꽃들

화색이 아름다운 아네모네, 층층이 보라색 꽃을 달고 있는 층꽃, 보라색 분홍색 흰색 등 다양한 색깔의 아스타, 시원스런 분홍색 꽃을 피우는 분홍구절초, 다양한 화색을 자랑하는 개망작국, 노란색 해변국화, 바닷가에서 주로 자라는 보라색 해국 등 다양한 가을꽃들을 식물원 곳곳에서 볼 수 있다.

■ 제2회 뷰식물원 사진전공모전

제2회 뷰식물원 사진공모전 당선작 시상식 및 전시회가 지난 8월 25일에 식물원에서 개최되었다. 출품작 작가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상에는 강명수씨의 ‘하트’가 선정되었다. 당선작에 대한 시상식 후에는 대회의 시간을 마련해 서로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현재 수확작품은 잔디광장에서 계속 전시되고 있다.



새로운 예뻐 가지고 새로이 단장한 전문식당

■ 전문식당 개장

시원한 물결기를 만날 수 있는 계류를 지나 아래로 내려오면 널따란 마당이 있는 초가지 한 채를 만날 수 있다. 이번에 새로 내부단장을 마치고 오픈한 뷰식물원 전문식당이다. 다른 곳에서는 쉽게 만나기 힘든 시원한 뷰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삼겹살이 동동 떠있는 볶기는 한여름뿐만이 아니라 추운 겨울에 먹어도 별미다. 닭볶음탕이 아니라 낙지볶음, 낙세전골, 매운감바뽕 등의 전문메뉴가 준비되어 있다. 더욱이 식당을 이용할 경우 식물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포천 뷰식물원
The View Botanic Garden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유동리 441
문의 : 1688-5088
서울사무소 : 02) 3412-1281~2



고급조경을 위한 새로운 경관연출기법!

‘우리꽃’ 이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조성하는 최고의 암석원

ARI 가든 (Alpine Rock Island Garden)



동강파인밸리 C.C



배여크리크 C.C



아시아나 C.C



이천연구소



중부 C.C



전천 C.C



일산 킨텍스 정문

특 성

- ① 봄부터 가을까지는 물론 동절기에도 상록성의 식물들이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도록 조성하여 최고의 경관적 암석원을 연출한다.
- ② 기존의 자연여건을 살리면서 돌과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을 이용하여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리고 고급스럽게 연출하는 새로운 타입의 경관연출기법
- ③ 우리나라의 기후조건 등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식재패턴에서도 새롭게 이루어지는 암석원
- ④ 식물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후 식물의 자연스런 천이과정까지 녹여 내는 전문가용 정원



 **우리꽃 · Wellbeing Life** 시공문의 : 02)3412-1281~2

자연을 닮은 사람들



우리꽃 사원모집 안내

우리꽃-서울지사

서울시 강남구 물연동196-82

모집부서	모집인원	학 렳	자격요건
총무·기획	1명	대졸이상	기획, 영어전공자 우대

우리꽃-이천연구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송곡리 696
우리꽃 이천연구소

모집부서	모집인원	학 렳	자격요건
생산관리	1명	고졸이상	원예, 조경관련 전공자 우대

※ 인사담당 : 02-3412-1281 (Fax, 02-3412-1283)

전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